

1980년 '비상계엄' 악몽 떠올린 광주시민들 거리로

선포 직후 모여 “윤석열 탄핵” 외쳐 5·18민주광장서 “위헌·위법” 강조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잇따라 “헌법 위반” 총궐기 대회 지속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담화를 통해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1980년 공포의 밤이 다시 재현될까 우려하는 마음을 안고 거리로 나왔다.

4일 오전 1시께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명이 모여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추진위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민주적 작태다”며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연 소나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비상 계엄 선포는 전시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한 명분이 전혀 없이 비상 계엄을 추진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비상계엄을 강행하면 투쟁을 전개해 끝까지 맞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의 해제결의로 무산된 4일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또 다시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촛불행동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와 시민 등이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광주의 각계 기관·단체 대표, 시민 등 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시

도로 규정하고 위헌·위법한 시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발언대에 서서 “80년 5월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퇴진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윤석열 탄핵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국대회에 동참

해 목소리를 냈다.

손정빈(33)씨는 “전날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며 “밤새 잠도 못자고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다가 5·18민주화운동 당시와 같이 광주 시민들이 모여 투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용기를 내서 이곳에 오게 됐다. 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

했다.

현직 공무원인 백형준씨는 “헌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정치적 중립은 잘못된 것에 따르지 말고 국민과 함께 저항하는 뜻이다”며 “광주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현기·정상아 기자

“45년 만의 비상계엄... 심장이 철렁 80년 5월 금남로 기억 떠올리게 해”

5·18 당시 시민군 출신 송남주씨尹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

“어제 뉴스를 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탱크와 군용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1980년 5월의 금남로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뉴스를 접한 송남주(67)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송씨는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며 계엄군의 폭력에 맞섰던 생존자다. 45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며 목숨을 걸었던 그에게 이번 사건은 과거의 비극이 재현되는 듯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당시 20대 초반의 송씨는 군 입대를 앞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민군에 합류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며 “수류탄을 조끼에 달고 군용차를 운전하며 잘못된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뛰어 들었다”고 회상했다.

45년이 지난 지금, 그는 과거의 비극이 재현되는 듯한 뉴스를 접하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 송씨는 “어제 TV에서 보

니 마치 1980년 5월로 돌아간 것 같았다”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과 울분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말했다.

송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국민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씨는 이를 “비상계엄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부당하고 명분 없는 조치임을 지적했다.

그는 “광주 시민으로서 비상계엄이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현재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에게 깊은 지지를 보냈다. 그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그는 “힘든 시절을 이겨내며 민주화를 지켜냈는데, 후대에 또다시 같은 고통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윤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 단체들, 공포의 계엄령에도 “다시 싸우겠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며 “이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연상케 했고 한마디로 느닷없고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다”면서 “무능하고 잘

못된 확신에 가득 찬 대통령이 무슨 짓을 저지를 지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를 한꺼번에 느끼게 했다”고 토로했다.

또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44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머지않아 있을 대통령 윤석열의 미래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오월단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새오월어머니집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헌법 질서를 거역한 ‘자위쿠데타’다”고 지적했다. 오월어머니집은 “어떤 상황에서든 쿠데타는 국가내란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을 더는 대통령직에 두면 안 된다”며 “비록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지만 다시 어떤 명분을 만들어 2차 비상계엄령 또는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 광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주동자와 반란에 가담한 공범자 일당들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